

□ 연구요약

【연구아젠다】

<p>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p>	<p>지식은 각기 학문적 독립성과 개별성을 지니면서도 사회변동, 글로벌화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통합과 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진화를 거쳐 왔다.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시공을 넘어 전파·교류되면서 그 가변적 속성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한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의 생명체로서의 지식은 다양성과 복잡성, 분기(分岐)와 통합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친다. 이처럼 지식이 ‘사회적 구속성’과 ‘변화의 가변성’을 갖는다면 ‘지식의 지역화’·‘지식으로서의 지역연구’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p> <p>이처럼 지식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이루어왔으며, 그에 따라 지식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도 새롭게 창출되어왔다. 그리고 지역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지식융합의 속도와 깊이는 지식 생산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p> <p>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등 각 지역은 세계의 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자신들만의 지식·지식인의 지형을 그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 사업단이 이러한 세계적인 지적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 문제는 세계적 규모의 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과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p> <p>따라서 본 연구 사업단은 “중국 지식 지형의 진화: 기제·공간·네트워크”라는 아젠다를 통해 중국의 지식 생산이 시간의 흐름과 탈 경계적 공간과 연동하는 역동적 동인으로 그려내는 지형을 유형화해서 중국 지식생산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화에 대응하며 컨버전스(Convergence)와 다이버전스(Divergence)로 재구성되는 중국 지식의 확산과 역류를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의 작용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제·공간·네트워크 세 축으로 구성된 아젠다 틀과 그 속에서 산출되는 연구 성과는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나아가 종합적인 중국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p>
-------------------------------	---

<p>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p>	<p>연구목적: 중국의 지식 지형의 변화는 중국 지역연구의 새로운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지식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지식 지형과 패턴을 보이지만, 그 방향성이 정향적(定向的) 진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分岐)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다양한 지식 지형을 보인다. 그러므로 중국 지식계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p> <p>본 연구 사업단은 지식의 가변성, 역동성에 착안하여 ‘기제·공간·네트워크’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지식의 생산지이자 발신지로 진화해 나가는 중국의 지식 지형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중국의 지식 지형을 기제와 네트워크로 구현함으로써 입체적인 중국 지식 지형도를 그려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으로서의 중국 연구의 이론화를 모색해나가고, ‘지식으로서의 중국학’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p> <p>연구내용: 1단계 “중국의 지식 지형: 흐름·구조·패턴”에서는 중국 지식의 지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지식 생산의 동인, 지식구조로서의 메커니즘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면적인 지식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지식 지형도의 밑그림을 그린다. 먼저 각 학문에서의 지식의 범주와 의미를 파악한 후, 그것이 어떤 구조에서 탄생하고, 그 탄생을 가져오는 동인은 무엇이며, 어떤 지식의 패턴과 유형을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 연구의 지식화로 재창출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하고, 지식으로서의 중국 연구의 이론을 정립하는 토대를 세운다.</p> <p>2단계 ‘중국 지식의 확산과 역류: 분기·융합·네트워크’에서는 지식의 가변성에 초점을 두고, 중국 지식의 확산과 재창출, 지식의 분기 등 지식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한다. 중국의 대내외적 지적 동향의 변화에 따라 신지식집단과 지식 생산양식 및 역할 변화를 파악한다. 또한 중국의 로컬지식이 어떻게 창출되는 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지역의 지식화를 이루어가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지식 지형과 지식으로서의 중국 연구의 이론화를 모색한다.</p> <p>연구방법: 본 연구 사업단은 융합의 접근 방법을 지향하고자 한다. 학문영역 간의 동시적·다차원적 접근 및 관찰을 할 때 활용될 것이다. 지식·지식인 연구가 한 사회의 연구에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융합적 접근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융합적 접근 방법은 중국 지식 지형에 투영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주목함과 동시에, 지적 주변부에 놓인 ‘사각(死角)지대’에서 벌어지는 지식 지형에 대해 보다 다면적인 관찰과 다양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p> <p>또한 네트워크는 지식교류의 실체를 규명하고 지식의 동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사업단이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이다. 네트워크 연구를 통하여 중국 지식의 대내외적 확장구조를 파악하고 중국 지식 체계의 동태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법론의 활용은 중국에서 어떠한 지식을 생산하고 또 세계의 지식을 수용하며, 이를 어떻게 중국 내에서 다시 적용하고 토착화된 중국 지식으로 전용하는가. 그리고 이를 다시 세계에 보편적 지식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p>
--------------------------------------	---

<p>기대 효과 (한글 2000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라는 하나의 지역을 ‘지식’이라는 키워드로 연구함으로써, 지식으로서의 중국 연구의 이론화를 모색해나가고, ‘지식으로서의 중국학’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의 지식 생산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식의 재창출에 작용할 중국의 탈 경계적 지식 생산의 기제와 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중국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네트워크와 지식 연구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식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중국 이해에 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다 학제적 접근에 기반한 융합적인 접근 방법과 연구방법으로서의 네트워크 연구는 중국을 넘나드는 지식의 실체를 다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나아가 한국 내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적 이해를 선도할 것이다. ○ 전통과 근대, 현대라는 전환과정에서 형성된 지적 패러다임과 지형 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과 세계 질서의 전환 속에서 올바른 미래 전망이 요구되는 한국의 사회적,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나 일대일로(一帶一路) 기획 등을 통해 보편적인 지식 질서를 구축해 나가려는 시점에서, 지식 연구의 글로벌적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세계 혹은 동아시아의 지식 질서와 헤게모니를 가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한국의 중국학 연구의 담론 확산도 기대될 것이다. ○ 연구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중국 지식인 DB, knowledge map, 지식구조의 시각화 등은 향후 중국연구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키워드 (keyword) (한글)</p>	<p>중국, 지식, 지형, 기제, 공간, 네트워크, 패턴, 확산, 분기(分岐), 융합, 로컬, 글로벌, 글로벌</p>
<p>키워드 (keyword) (영문)</p>	<p>China, Knowledge, Geography, Mechanism, Space, Network, Pattern, Diffusion, Divergence, Convergence, Local, Glocal, Global</p>

【지역인문학센터】

<p>센터운영 목표 및 계획 (한글 2000자 이내)</p>	<p>본 연구 사업단은 2009년 기존 HK사업의 시작과 함께 10년간 사회확산 사업 차원에서 성북구청의 ‘시민강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HK연구인력은 타 학문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연구를 다년간 수행해옴으로써 중장·노년층에게 중국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풍부한 대중강좌 경험과 융합적 전문성을 고루 갖춘 교육인적자원을 구축하여 인문학의 대중화와 사회적 확산을 실천하려는 것이 본 연구 사업단의 지역인문학센터의 설립 배경이자 목표이다.</p> <p>본 연구 사업단의 “중국 지식의 인문교육: 지(知)·행(幸)”은 중국의 인문지식을 통한 ‘공감’과 실천으로서의 ‘동행(同幸)’을 모티브로 한 사회확산 차원의 인문교육프로그램이다. 아젠다 연구와 연계된 교육 내용을 통해 학교 안팎의 청소년, 중장·노년층 혹은 여성층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아젠다 연구의 확산기지는 물론 지역 인문학의 허브로 작용하고자 한다.</p> <p>첫째, 성북구·강북구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 인문학센터로 자리매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와 강북구의 대중 인문학 강좌의 실태와 관련 기관 조사 ○ 인문학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성북구·강북구 소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협력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인문학 강의와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관련 콘텐츠와 인력을 제공 ○ HK연구인력 외에 협약기관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전문연구자와 교육자를 연계 ○ 인문학 강좌와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과 효율적인 운영 인프라 구축 <p>둘째,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지식의 인문교육: 지(知)·행(幸) 프로그램은 성북구·강북구 소재의 아동 청소년과 학교 밖의 청소년, 중장·노년층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행 ○ 각 대상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 강북구 소재의 미양중학교, 성북구 소재의 성북구청평생학습센터,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의 협력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 미양중학교,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는 국민대학교의 지역인재개발센터와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학교와 연구소 간의 협업 체제로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수행 가능 <p>셋째, “중국 지식의 인문교육: 지(知)·행(幸)”의 대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사회과학의 융합 체제하에 산출된 중국 지식연구의 학술성과를 인문교육의 대중화에 적극 활용 ○ 로컬이라는 지역적 공간과 지식, 인터넷 공간을 넘나드는 신지식과 지적 집단, 다양한 매체를 매개로 한 지식 확산, 중국의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지식의 흐름과 지식 질서 등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중국과 세계의 지적 흐름을 대중적으로 확산
---	---

<p>센터활동 주요 프로그램 계획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p>	<p>“중국 지식의 인문교육: 지(知)·행(幸)” 프로그램은 성북구와 강북구 소재의 아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중장·노년층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통·공감·동행(同幸)을 위한 수용자 맞춤형 인문교육프로그램이다.</p> <p>첫째, 지(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인문 소양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미양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활용 ○ ‘《삼국지(三國志)》’와 같은 대중적 고전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중국의 의식주행’ 등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 ○ 문학·역사·정치·사회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과 협업 체제로 제작, 실행 <p>둘째, 행(幸)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인문교육프로그램은 성북구청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의 협력 체제로 진행 ○ 중국 문화 속에 나타난 청소년의 삶과 꿈 등을 주제를 콘텐츠로 활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문학작품이나 역사 속의 다양한 인물과 군상들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연극 활동,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 중국문화체험을 위한 현장 학습과 중국어 교육을 통한 미래 진로계획을 도모 <p>셋째, 중국의 지식 확산과 인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명암에 대한 정치·경제 지식에 대한 중장·노년층의 대중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성북구청의 시민강좌를 실행 ○ HK연구인력 외에도 관련 국내외 연구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인문학적 통찰력에 기반하여 현재 중국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 줄 수 있는 텍스트와 영상물 제작 예정 ○ 이러한 영상과 제작물을 방송 매체나 잡지 등의 매체에 제공하여 아젠다 연구와 대중적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중국전통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중국 인문고전을 통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 콘서트, 인문도시기획 등에서는 중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하여, 중국에 대한 공감장을 지역사회로 확대
<p>센터 활동 지역(地域)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강북구 소재의 교육기관: 미양중학교, 성북구청평생교육학습관, 성북구청청소년복지센터, 성북구청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과의 인문교육강좌 실시
<p>협력기관과 협력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기관: 미양중학교, 성북구청 평생교육학습관, 성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북구청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연구재단의 인문대중강좌 등 ○ 국민대학교 지역인재개발센터: 미양중학교, 성북구청, 성북구청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과 협력체결기관으로서, HK연구인력의 사전 소양 교육 진행 ○ 협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양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수업방식을 통한 중국콘텐츠 제공 - 성북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 교육 실시 - 성북구청 평생교육학습관: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관련 인문강의 제공 - 인문학 대중강좌: 중국 지식·지식인의 다면적 발현이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인문학 강의 준비

<p>기대 효과 (한글 2000자 이내)</p>	<p>본 연구 사업단의 지역인문학센터가 설립되어 “중국 지식의 인문교육: 지(知)·행(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p> <p>첫째, 지역 내의 학교와 센터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내 지역주민의 인문 소양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p> <p>둘째, 지역 인문학센터의 HK연구인력 등의 교육 인적 풀은 이미 다양한 강의 경험과 아젠다에 대한 전문연구를 결합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강의·교육을 실행해왔으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p> <p>셋째, 인문교육강좌는 교육청과 연계를 맺어 자유학기제를 위해 우수한 교육 내용과 다양한 교수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콘텐츠와 교육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관을 돕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p> <p>넷째, 지역 인문학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확산과 환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HK+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센터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인문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p> <p>다섯째, 연구소의 아젠다 사업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면서, 동시에 다시 대중을 위한 인문학 강좌로 거듭나는 환원 과정을 실현하여, 지식의 사회적 확산에 일익을 할 것이다.</p> <p>여섯째, 지식의 생산과 이를 향유하는 중요한 매개체 교육기관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교육 활동에의 참여를 유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게 하는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미래의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 <p>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양질의 교육문화체험을 통해 인문적 소양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다.</p>
--------------------------------	--